

실내건축디자인학과 19학번

조하연 졸업생

소속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직위 : 대리



Q1. 대학생활에서 가장 뜻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3년간 참여한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험 부족과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지만, 고된 작업에도 솔선수범하고
동기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책임감과 자기주도적인 자세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Q2. 대학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어떤 실무 역량을 쌓으셨나요?

졸업 전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지적현황측량과 주민 실거주 조사 등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실내건축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건설 초급 기술인으로 등록하고 공모 업무에도 참여했습니다.

Q3. 대학생활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다양한 성과도 이루셨다고요.

성적우수장학생으로 4회 선정되었으며, 학업우수상(총장상), 예술체육비전장학금(교무부장관상),
졸업설계우수상(학과장상) 등을 포함해 총 13회의 수상 및 선정 실적을 쌓았습니다.

한 번의 특별한 결과보다는 매 순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해 온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4. 현재 건축사 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주요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현재 ㉔종합건축사사무소 창 of 기술지원팀 대리로 재직하며
설계 완료 단계에서 시공성과 위험요소를 검토하고, 발주처·설계자·시공사 간의
조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59건의 프로젝트를 일정 지연 없이 수행했으며,
설계 오류와 누락을 개선해 현장 위험요소를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시켰습니다.

Q5. 건축사 사무소에 입사 후 현재의 역할을 맡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입사 초기에는 건축학과 출신이 아니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철거 도면 작성부터 모델링,
보고서 작성까지 배우며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입사 2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설계 단계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Q6.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3~4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설계 실무, 공모전 전략, 실시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실제 현장 도면과 시공 자료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진로 상담과 인턴 지원 멘토링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학과 후배 한 명이 같은 회사에 입사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Q7. 앞으로의 목표와 광주여대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요?

건설안전기사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며 설계와 안전을 아우르는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해
건설 현장의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광주여대에서 배운 수용력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모교와 학과를 빛내고,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전공자도 건축 및 건설 안전 분야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